

# 홍채인식 '아이포춘2003'

## 점술 · 건강자판기 등장



**홍**채인식기술을 적용해 개인의 건강상태와 운세까지 알려 주는 이색 자판기가 등장했다. 홍채인식기술 전문업체인 아이리텍이 선보인 '아이포춘(EyeFortune) 2003' 자판기는 재미와 실용성이 결합된 자판기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간의 홍채까지 자판기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시대를 연 '아이포춘 2003' 자판기를 집중취재했다.

최근 사람마다 고유한 신체적 특징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식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하고 있다. 생체인식 기술에 쓰이는 신체특징으로는 지문, 얼굴, 망막, 홍채, 혈관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중 홍채 인식은 홍채의 모양과 색, 망막 모세혈관의 형태소 등을 분석해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홍채는 지문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차이를 잘 드러내주는 신체 특징이다. 아기 때 한번 그 패턴이 완성되면 오랜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유전적으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른 홍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

홍채가 사람마다 달라서 개인 식별을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은 1980년대에 미국의 안과 의사 레오나르도 폴롭과 알란 사피르에 의해 처음 밝혀졌고, 곧 이를 이용하기 위한 특허가 등록됐다고 한다. 이후 홍채의 패턴을 2백 56비트로 코드화한 다음 이를 영상신호 처리해 비교,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됐으며 현재 상용화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아이포춘 2003'을 개발한 아이리텍은 이러한 홍채인식 전문 바이오벤처로 99년 10월 김대훈 박사가 주축이

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지난해는 한국기술투자 등으로 부터 300만 달러를 투자받아 미국에 '아이리텍USA'를 설립했으며, 현재 모스크바에 연구소를 두고 있다.

아이리텍은 여러 홍채인식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건강 진단, 마약진단, 입출입장치, 홍채인식 ATM 분야, 아이포춘2003 등 분야에 있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홍채인식 ATM은 홍채 인식기술을 탑재 저장돼 있는 홍채정보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할 수 있게 한 첨단 제품으로, 효성과 공동개발을 통해 제품전개가 모색되게 된다.

'아이포춘 2003'은 어뮤즈먼트 ·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강한 제품군으로 홍채인식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대중성이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홍채를 통해 인체의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운명까지 예측해 볼 수도 있다는 점이 제품화의 계기가 되었다.

자판기 형태로 개발이 된 이 제품은 카메라에 3초가량 눈을 대고 있으면 사람의 홍채를 촬영한 뒤 화상데이터를 분석해 성격이나 스트레스 정도, 장기의 건강상태, 홍채와 생년월일에 의한 운수, 연인이나 친구와의 관계, 체질에 맞는 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홍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전적 체질정보를 13가지 타입으로 나누고 후천적 체질정보는 12가지로 분류해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건강상태나 운세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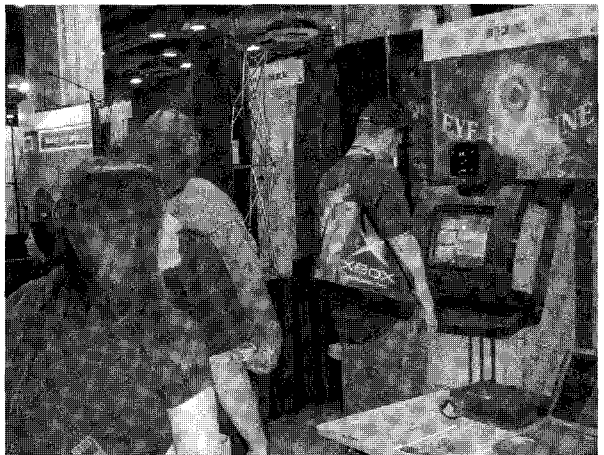
한마디로 재미와 실용성을 겸비한 새로운 형태의 어뮤즈먼트·엔터테인먼트자판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건강상태 체크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을까? 회사 측은 홍채는 스트레스나 피로 정도에 따라 타입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몸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성격이나 앞으로 걸릴 수 있는 병이나 장기의 상태 등을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100% 신뢰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는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점술·건강 자판기는 국내보다는 일본에서 먼저 시장공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텔리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JR역사, 국철, 가라오케, 오락실 등지로 제품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이리텍은 텔리만사로부터 기술이전의 대가로 이니셜 로열티 및 기술투자비를 포함해 100만달러와 발생매출에 대한 러닝 로열티를 별도 지급 받게 된다. 금년 말까지 적어도 3000~4000대의 물량전개를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 10월경부터 본격적인 사업전개가 모색되게 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국내 시장성에 대해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독특한 제품 성격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인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격이나 체질이 다 분석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점술자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을 기대하고 있다.

아이리텍은 최병호 부사장은 아이포춘 2003은 “보안영역에만 치우쳤던 홍채인식기술을 엔터테인먼트분야로 넓히는 것”이라며 “젊은 층 뿐만 아니라 중노년층에서



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포춘 2003의 전개와 더불어 모바일로도 자판기와 동일한 홍채인식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핸드폰 화소가 300만 화소가 이상이면 기술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홍채인식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적용한 ‘아이포춘 2003’의 시장 전개는 어뮤즈먼트·엔터테인먼트 자판기 분야의 새로운 시장성에 대한 큰 기대를 머금게 만들고 있다. 과학적인 시스템이 적용된 ‘아이포춘 2003’이 소비자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